

하준이법 시행 한 달여... 현장선 “그게 뭐죠?”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의무화 불구 설치 미미 학부모 “불안” 운전자 “몰랐다”... 행정 “단계적 설치”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흘러 내리지 못하도록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하준이법’(주차장법 시행규칙·도로교통법)은 2017년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흘러내리며 당시 4살이던 최하준 군이 목숨을 잃은 사고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주차장들은 의무적으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기존 경사진 주차장들은 오는 12월 26일까지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는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

나 핸들을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하준이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제주 시내 비탈길 주차장에선 법 시행을 위한 행동이나 조치가 찾아보기 힘들었다.

3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의 한 경사진 노상 주차장에는 양옆으로 차량 20대 정도가 주차돼 있었지만 미끄럼 방지 시설은 보이지 않았다. 근처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은 경사가 꽤 가팔랐지만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물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도 보이지 않았다.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제주시 도남동, 이도2동, 아라동, 삼도1동 등 제주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하준이법’ 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제주의 경사진 주차장에선 여전히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강다혜기자

고임 방지 시설이 설치됐을 뿐 노상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선 미끄럼 방지 시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학부모 이윤지(32·여)씨는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하지는 법인데, 운전자들도 지자체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아이가 아직 어려서 주차된 차 근처만 가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설치의 의무화했다는 안내 표지판도 전혀 없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김가연(40·여)씨는 “‘하준이법’을 들어봤지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줄 몰랐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현재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직접 단속을 나서진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제주시내에 몇 군데에 미끄럼 방지 시설과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가 필요한 대상지가 어디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차차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여학생 교복 치마나 바지 선택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여학생들이 교복을 신청할 때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면서 제기돼 온 학생·학부모 불편 사항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보면 여학생들이 바지나 치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로 규정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검토가 이뤄진 사안이다.

또한 교복 가격 총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재킷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은 정해지지 않아 추가 구매율이 높은 셔츠나 블라우스, 치마, 바

지 등의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도 제시에 따라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교복 품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 공고 과정에서 섬유소재, 혼용률 등에서 현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교복 선정위원회의 역할도 내실화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한 교복 치수 측정 기간이 3일로 짧아 불편하다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에 주말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교복 선정 시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품질·디자인, 학생의 성 인지 감수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과 관련한 불만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평가 엉터리”

반대주민회 공사 중단 촉구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도로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정해군기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3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왜곡·조작된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진입도로는 매장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유물이 나왔다”며 “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유물이 발견됐다고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9월 중 조사가 끝나면 바로 공

사를 재개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정천은 은어 서식지와 천연기념물 원앙을 비롯해 다양한 종의 새들이 서식하는 환경”이라며 “천연기념물 녹나무 자생단지가 있고 최근에는 멸종위기 2급 식물인 솔잎란이 다량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는 솔잎란 위치를 허위로 작성했고 천연기념물 냇गी소담팔수나무 위치도 허위였다”며 “이렇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피해는 누구의 몫이 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진입도로와 관련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업은 마땅히 중단되고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다혜기자



카약으로 즐기는 여름 바다 3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포구에서 관광객들이 투명 카약을 타며 여름 바다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감귤 열매숙기 예년보다 10일 일찍 시작

10월말까지 현장지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노지감귤 수확 직전인 오는 10월 말까지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생산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열매숙기 현장교육을 비롯해 타이백 피복 재배 관리 지도 및 극조생감귤 부패과 제로(Zero) 등 현장지도도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노지감귤 2차 생리낙과는 지난 해보다 4일 정도 빠른 지난 7월 15일 종료돼 현재는 착과가 안정된 상태.

농업기술원은 이에 따라 상품률을 높이고 수확 일손은 줄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열매숙기 붐 조성에 나선다. 특히 올해 열매숙기는 평년 8월에 추진했던 것보다 다소 일찍(약 10일 전후) 시작하는데 나

무숙이나 밑에 있는 작은 열매 위주로 전부 따내고, 붉순이 많은 가지에 등숙성숙 달려 있는 열매 또한 모두 따내야 한다.

평균 생리낙과율은 1차 78.4%, 2차 9.7% 등 총 88.2%로 전년 86.9%보다 1.3%p 많고, 평년 88.5%에 견줘서는 0.3%p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기술원은 단계별 열매숙기 추진 방침을 마련해 1단계, 8월 상순까지는 해거리 방지와 품질 향상 열매숙기 1단계,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착과량이 많은 나무나 작은 열매, 결점과 숙아내기 1단계, 9월 하순에서 수확기까지는 아주 크거나 작은 열매, 중점결과 등 불량열매 위주로 숙아내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또한 효과적인 열매숙기 추진을 위해 4개 농업기술센터에 열매숙기 현장 지도반을 편성해 작목반, 공선회, 농업인단체,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귀기자 haru@ihalla.com

추차 응급환자 잇따라 소방헬기 긴급 투입

주말 휴일 사이 제주 추자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소방헬기가 구조에 잇따라 투입됐다.

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37분쯤 추자면 영흥리에서 박모(65·여)씨가 복막투석 후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추차보건의료센터의 검사와 치료를 위해 소방헬기 지원을 요청해 박씨를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약 3시간 후인 오후 2시 31분쯤 추자면 김모(73)씨가 뇌졸중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추차보건의료센터 지원 요청이 119에 접수됐다. 김씨는 곧바로 투입된 소방헬기에 의해 이송돼 1시간만인 오후 3시 35분쯤 제주한라병원으로 옮겨졌다.

강다혜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국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강, 탐나는봉

가정원에(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은,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으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회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